

보도시점: 2024. 12. 16.(월) 08:30 배포: 2024. 12. 16.(월) 08:30

“주한 외국인 기업·학교·유학생 고충...” ‘소통의 장(場)’에서 의견 나눈다

- 국민권익위, 외국인 관련 기업 및 대학 관계자 등 30명 초청
- 비자·유학생 취업 등 관계부처 최근정책 공유, 제도개선 건의사항 청취

□ 외국인투자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인구감소시대에 부족한 근로인력 문제 및 외국인 유학생의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관련 기업·대학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들이 만나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주한 외국기업, 외국교육기관,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는 국내대학 등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 외국인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조건과 관련된 고충,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비자 문제,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조건 규제 등 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건의들이 제기될 전망이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참석하여 국민권익위와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글로벌 문화를 조성하고, 주한 외국인의 기업활동 및 근로 조건 개선, 외국인 유학생의 불편사항 해소 등 보다 나은 경제·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상호 협력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다양한 가치와 관습이 공존하는 세계 10대 강국인 한국에서 외국인자본투자와 글로벌무역, 국제적 교육 환경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현장고충조사과	책임자	과 장	박홍상 (044-200-7831)
		담당자	사무관	이연희 (044-200-7414)

